

Minimally Invasive Surgery (MIS) of Esophageal Resection and Reconstruction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김용희 · 박승일

Purpose

식도암이나 부식성 식도 협착 환자에서의 식도 절제술 및 식도 재건술은 개흉술과 개복술을 해야 하므로 다른 수술에 비해 매우 복잡한 술식을 필요로 하며, 높은 합병증 발생률과 수술 사망률을 보인다. 식도 절제술 및 식도 재건술에서의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분석하였다.

Methods

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식도암이나 부식성 식도 협착으로 식도 절제술 및 식도 재건술을 받은 환자 중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26명은 흉강경을 이용한 식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, 4명은 Robot-assisted surgery를 시행하였다. 문합은 17명에서 자동 문합기를 사용하였다.

Result

대상 환자의 성비는 남자 27명, 여자 3명이었고, 중간 연령은 65세(54-80세)였다. 원인 질환은 조기 식도암 26명, 재발성 식도암 2명, 부식성 식도 협착 2명이었다. 식도 절제술에 걸린 중간 수술 시간은 90분(54-180분)이었고, 중간 전체 수술 시간은 360부(220-660분)이었다. 2명에서 개흉술로 전환되었고,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성대 마비 2명(6.6%), 문합 부위 누출4명(13%) 등이 있었다. 수술 사망은 없었다. 중간 생존 기간은 34개월, 3년 생존율은 45%였다.

Conclusion

최소 침습 수술을 통한 식도 절제술 및 식도 재건술은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지만, 이를 표준화된 수술 방법의 하나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많은 연구 결과들이 필요하다고 본다.